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7호 2014년 12월 4일(목)/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실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환경부 주관 2014 그린캠퍼스 선정



지면안내

2면 Campus News
환경부 주관 '2014 그린캠퍼스' 선정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동참
3면 Campus News
중원대 'ADRC 연구소' 개소
4면 Campus News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개
5면 Campus News
중원대-中안휘의학전문대학과 학술교류
6면 Professor
이화용 교수, SCI급 논문 발표
박민규 교수, IBC 세계 100대 과학자 선정
이태수 교수, '충의직언' 공감도서 선정
7면 Students News
제 6기 학생홍보대사 '가람' 발대식 개최
스포츠 건강의학 오재원, 육군장교 최초 임관
8면 · 9면 Students News
조원상, 장애인아시안게임 금메달
양영호, 인천아시안게임 양궁 은메달
10면 JWU in 人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조원상 선배
국가대표 양궁선수 김종호, 양영호 학우
12면 JWU in 人
Andrea와 Sammi를 알아보자
13면 Special Report
중원대학교에 관한 궁금증 해결 Q&A
14면 Special Report
내 고민은 어디서 들어줄까?-학생상담센터
취업을 위한 돌파구!-취업지원센터
15면 Special Report
의료공학과 드림메디컬 멘토링 팀
WISET 멘토링 프로그램 선정
16면 Special Report
항공서비스학과 이연숙교수
경호학과장 박영만 교수
17면 Special Report
의료 · 보건의 선봉, 간호학과
18면 Jungwon Festival
JWU Festival Show
20면 Culture
English cafe에 대해 알아보자
언론장학생 소개
21면 Culture
영화속으로 루시, 인터스텔라
22면 Culture
겨울방학 대비 계획표 작성 방법
23면 Culture
'아름다운 중원인 사진 공모전'

환경부 주관 '2014 그린캠퍼스' 선정









캠퍼스 녹지율 70%, 단일건물 최대 지열냉난방시스템, 탄소배출률 0%! 중원대학교가 10월 1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하는 '2014년 그린캠퍼스'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중원대가 그린캠퍼스에 선정이유는 2009년 개교부터 단일 건물로는 최대 규모의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기숙사는 태양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전력을 자체 수급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퍼스 면적의 70%이상을 녹지로 만들었으며 국내 최초 유일한 캠퍼스내 천연잔디 골프실습장을 운영하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각종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개교 초기부터의 그린캠퍼스 실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부터 시작된 그린캠퍼스 지원 사업은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와 공단은 지난 7월 31일부터 한 달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중원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을 2014년 그린캠퍼스로 선정했다. 중원대는 기본적인 에코캠퍼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친환경 교육과정 개발, 친환경생활실천운동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정부로부터 연간 4천만원(3년간 1억2천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 대해 안병환 총장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 즉 인성교육을 위해 개교 초기부터 그린캠퍼스 전략을 추진해 온 결과"라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그린캠퍼스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희망 2015 나눔캠페인' 동참

중원대학교는 11월 18일 부터 24일까지 1주간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희망 2015 나눔캠페인'에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동참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함께 나누는 행복공동체로 참여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기 위해 중원대학교 사회봉사단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진행하게 되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도 흔쾌히 이번 행사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금캠페인에 직접 성금을 기부한 안병환 총장은 "충북의 공동체로써 조그마한 정성이나마 이웃에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함께한 학생들의 모습에서 인성교육의 성과를 봤다"라며 학생들을 칭찬했다.

이번에 거둔 성금은 충북공동모금회에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 안병환 총장이 신현주 학생처장과 함께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 'ADRC 연구소' 개소



▶ 안병환 총장이 ADRC 연구센터 개소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네 번째 리동하이 교수(Tsinghua University), 여섯 번째 가오 교수(Cleveland State University)

중원대학교가 10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CEO룸에서 'ADRC연구소 센터' 개소식 및 초청 강연을 가졌다. 중원학교는 최근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인 자율외란제거제어(Active Disturbance Rejection Control) 기술을 신성장 동력 산업에 접목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해 개소식을 가졌다. 특히 ADRC 기술은 에너지·자원 개발관리, 대형 운송 시설 제어, SOC 시설물 안전 관리, 의료 기기 개발 등에 접목이 가능하다.

개소식에는 ADRC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는 중국 청화대학의 리동하이 교수와 미국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의 가오(GAO)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 및 교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초청 세미나 및 토론회가 이어졌다.

초청 강연에서 가오 교수(Cleveland State University)는 'ADRC:원리 및 방법론 소개'를, 리동하이 교수(Tsinghua University)는 'ADRC:기술과 응용'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이방현 박사(LS 메카피온 회사 수석연구원)의 '서보시스템에서의 진동 및 공지 제어'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특히 중원대 ADRC연구센터는 중국 청화대, 미국 클리브랜드대와 공동으로 연구를 해 앞으로 5년간 자동제어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선도할 인재 육성은 물론 센터를 통해 우리 대학은 물론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센터의 연구 인력은 한·미·중 세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보조 연구 인력은 전 세계 석·박사 학생을 모집하여 앞으로 이 분야의 글로벌 거점 센터의 역할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ADRC센터장(김형수 교수, 신재생에너지학과)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중원대학교 ADRC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로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해 나갈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전문 지식인 양성은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괴산유기농엑스포 성공기원 학술세미나 개최!

"인성, 유기농, 생태환경의 만남" 주제로 진행

중원대학교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중원대학교는 11월 6일 오후, 중원대 CEO룸에서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기원 '중원미래전략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안병환 총장, 허경재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 손상목 ISOFAR 회장, 이정근 육군 37사단장을 비롯한 유기농업 기관·단체장, 인성교육, 생태환경 및 생태관광 관계자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중원대학 유기가공사업단과 중원미래전략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인성, 유기농, 생태환경의 만남"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날 세미나를 통해 청정지역 괴산의 생태적 삶의 보장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역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손상목 ISOFAR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생태적 삶을 위한 삶의 방향 설계와 인성교육'(조용태 교수, 중원대학교 교양학부장), '세계 유기농산업 발전 추세와 괴산지역에서의 유기농산업 정착 방안'(김도완 교수, 중원대학교 RIS사업단장), '생태적 삶의 지속을 위한 생태환경 보전 및 생태관광 산업의 전망'(장병권 부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JBK 미란츠대표), '2015년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혁신 클러스트 방안'(윤정현 교수, 영남대학교, 영남대사회과학연구소)등 5개의 주제 발표와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국내 최초 유기농산업 CEO과정 개설!

손상목 세계유기농업학회장 개강기념 특강 개최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도완 교수)은 9월 17일 오후 6시 30분 중원대학교 CEO룸에서 국내 최초로 유기농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유기농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은 내년 괴산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앞두고 지역 리더들과 공직자, 관련 산업체 임직원 등 유기농산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유기농 산업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친환경 농업 전문가 과정 등은 타대학에서 개설된 바 있지만 유기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산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기농산업 전문가 과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되고, 유기농 특화도 충북 선포 등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기농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개강식을 기념하여 ISOFAR(세계유기농업학회) 회장인 손상목 교수의 "유기농업의 태동과 유기농산업의 발전 추세"라는 공개 특강이 있었다.

이번 유기농 CEO과정은 9월 17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중원대학교 CEO룸에서 진행되고 세계적인 유기농 대표 단체인 ISOFAR과 IFORM 회장 등 국내외 유기농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의 친환경 캠퍼스로 정평이 나있는 중원대학교는 캠퍼스 건물 전체의 냉난방 시스템에 기름 한 방울 사용하지 않는 탄소제로형 건물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 골프실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유기농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다.

김도완 평생교육원장은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유기농 산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과 충북지역의 중추적인 산업을 지역 대학이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 안병환 총장이 제 9기 유기농 산업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 손상목(ISOFAR 회장)

2014 풀브라이트 ETA 워크숍 열려!

풀브라이트 한미교육위원단과 중원대학교는 8월 19일(화) 중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 교감, 영어교사 200여명을 초청하여 2014 풀브라이트 ETA(영어 원어민 교사)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 안드레아에게 안병환 총장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심재옥 한미교육위원단장의 인사말과 ETA에 대한 당부말을 시작으로 안병환 중원대 총장의 인사말, ETA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원어민 교사 수범사례와 영어 교육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2014 풀브라이트 ETA 프로그램에는 원어민 교사 76명이 6주간 중원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습과 영어 교수법에 대한 워크숍과 한국문화 체험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수료했다.

한편 지난 해 수료한 ETA 39명은 다시 1년간 더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중원대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풀브라이트 ETA 프로그램을 한미교육위원단과 함께 하고 있다.

중원대, 마음을 담은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개



▶ 중원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칠성면 주민들 가정에 연탄을 나르고 있다.

중원대 사회봉사단, 괴산 칠성면에 연탄봉사활동



중원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11월 28일 오전 괴산군 칠성면을 찾아 지역 어른신과 주민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중원대학교 사회봉사단 소속 교수와 직원, 학생 100여명이 참가해 괴산군 칠성면 일대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5가구에 약 1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현주 사회봉사단장(연극영화학과 교수)은 "비가 내리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직원과 학생이 한마음이 되어 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중원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역 봉사활동단체인 (사)징검다리의 임동현 대표와 조광수 괴산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격려차 방문해 봉사활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중원대학교는 12월 초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괴산군 일대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탄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임태균 기자 tg0610@naver.com

괴산고추축제 성공기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전개!

동진천 일대,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참가

중원대학교는 8월 21일 오전 10시, 고추축제 행사장인 동진천 주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약 8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2014 괴산 고추축제의 성공적인 성료를 기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안병환 총장은 "우리 지역의 최대행사인 괴산고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조그만한 보탬을 드리고자 참가했다"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현주 중원대 봉사단장(연극영화학과 교수)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과의 우의는 물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원대는 이번 괴산고추축제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학생모집은 물론 SNS를 통한 고추축제 홍보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이 동진천 주변 일대의 쓰레기를 줍고 있다.



중원대 – 中안휘의학전문대학과 의료보건 학술교류 급물살!

니우 리유안 중국 안휘의학전문대학 이사장 일행 방문

중국 안휘의학전문대학 니우 리유안(牛丽娟, 당서기) 이사장이 7월 7일부터 2박 3일간 중원대학교를 방문하고 양교간의 학술교류에 관한 논의를 심도있게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안병환 총장의 중국 안휘의학전문대학과 의료보건분야에 대한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문에 대한 리유안 이사장의 답방으로 상호 학술과 인적교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휘의학전문대학 이사장 일행은 방문 첫날과 이튿날 중원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본 후 안병환 총장을 예방하고 양교 교류 활성화에 대해 두 차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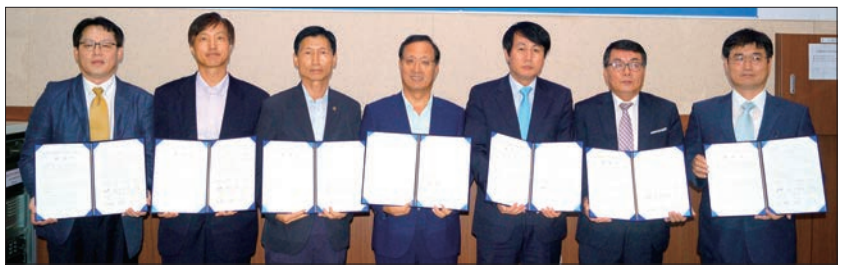
니우 리유안 이사장은 "중원대가 보유하고 있는 실험 장비와 기구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최근 중원대가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안병환 총장이 추진하고있는 '체·덕·지'와 '인성'을 기본으로한 신개념의 독특한 대학교육정책이 이번 방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안병환 총장과 니우리유안 이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자유경제구역청, 항공MRO단지 맞춤형 인력 양성 협약 체결



▶ 한기봉단장(오른쪽 첫 번째)이 협약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정비사업(MRO)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원대학교는 지역 대학 4곳과 고등학교 1곳과 함께 8월 26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성 및 항공정비인력 양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한기봉 중원대 산학협력단장과, 전상헌 충북경제청장을 비롯해 신태명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단장, 황신모 청주대 부총장, 남의석 극동대 교무처장, 손세원 충청대 부총장, 오교식 청주공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내 항공정비사업 육성·발전 공동 노력 △청주공항 MRO단지에 항공정비인력 제공 △항공정비인력 양성 지원 △기타 항공정비사업 관련 상호 협력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열린 장종식 충북항공 MRO 정책자문단장 주재 '인력양성방안에 대한 전문가 포럼'에서는 한동주 극동대 학과장의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인력 양성방안', 이대섭 아시아나항공 교육팀 차장의 '항공 MRO 기업 교육훈련체계'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충북관광협회와손잡고 인재 양성

국가관광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원대학교와 충북관광협회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중원대학교는 11월 12일 오전 충북관광협회와 국가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통해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의 신기술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사업 ▲공동기술개발 및 현장 인력 교류, 강의 및 특강 참여 등에 관한 사업 ▲양 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업 ▲교과과정 및 기술교류회, 공동워크숍 등에 관한 사업 ▲학생의 장학 지원, 현장 실습, 인턴십 및 취업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중원대 안병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충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관광협회 이상영 회장은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적극 계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방산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인삼, 약초, 버섯의 국내산업 활성화와 공동프로젝트 개발 기대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화이팅을 하며 협약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6월 25일 오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방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안병환 중원대 총장과 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보직자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삼, 약초, 버섯의 국내산업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상호 공동노력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약초반 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 교육 지원 ▲양 기관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개발 ▲주기적인 학술적 교류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원대 안병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달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인삼특작물과 약용작물에 대한 효능 평가와 연구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의 인프라를 최대한 공동 이용해 우수 연구인력을 양생하자"고 말했다.

이화용 교수, 상위 10%내 SCI급 논문 발표!

9월, 일본 국제암학회에서도 우수연구자상 수상


이화용 교수
산학협력전담

중원대학교 이화용 교수(산학협력전담교수, 35)가 유전과 생화학 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인 Mutation Research(돌연변이 연구)에 논문이 게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화용 교수는 그동안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에 관한 논문들이 많았지만 중간엽줄기세포가 종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집대성해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암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Mesenchymal stem cells and cancer: Friends or enemies? Mutat Res Fundam Mol Mech Mutagen. 2014 Oct 768:98-106)

이번에 발표된 Mutation Research는 저널영향력지수가 4.4로 SCI급 논문 중 관련 논문 상위 10%내의 국제적인 연구지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난 9월 일본에서 열린 제 73회 일본 국제암학회에서 '잠자는 공주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연구방법'(Novel therapeutic approaches for various cancer types using a modified sleeping beauty-based gene delivery system)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우수 연구자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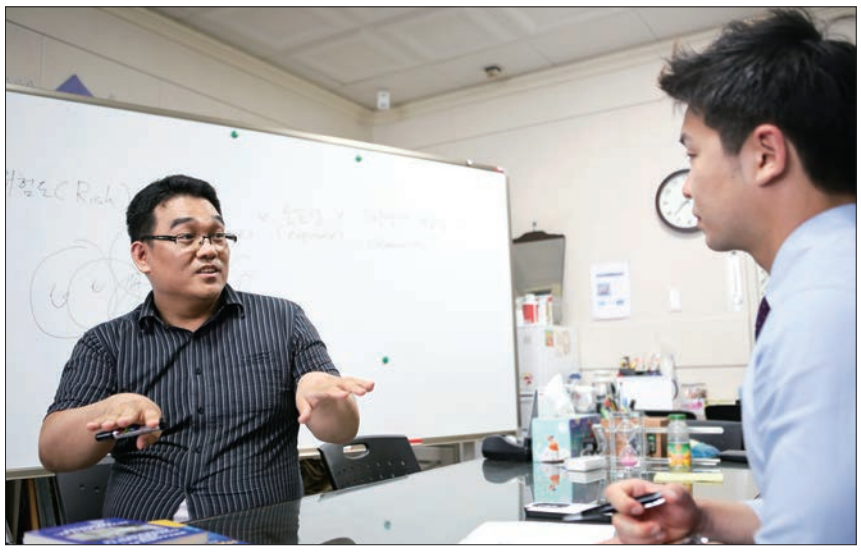
이 논문에서는 잠자는 공주 (sleeping-beauty)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 암과 같은 여러 다양한 암세포에 치료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암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화용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중간엽 줄기세포가 종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암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암치료 뿐만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줄기세포의 역할을 규명하고 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통하여 성체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함으로써 여러 노화 관련 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모델을 제시하거나 증상의 진행을 완화 시키는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연구 계획을 말했다.

30대 중반의 젊은 여과학자인 이화용 교수는 일본 오카야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과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지난 3월 중원대학교에 부임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민규 교수, IBC 세계 100대 과학자 선정

재해관리연구분야 업적 탁월, 재난관리 연구 개발과 산업화에 많은 공헌
21세기 대표 지성인 2000명, 2014년 세계의 주요 전문가로도 선정


▶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된 박민규 교수가 충북방송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방재안전공학과 박민규 교수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nternational Biographic Center, IBC)'가 선정한 '세계 100대 과학자(TOP 100 SCIENTIST 2014)'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IBC는 지역과 국가, 국제수준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과학자들을 심사해 매년 세계 100대 과학자를 선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재해관리 분야 연구에서 이변량 해석을 통한 정량화 방법과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기법을 제시한 것으로 연구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과 취약성 함수(vulnerability function) 도출의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박민규 교수는 SCI(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 등에 50여 편 이상의 논문과 특허를 발표하는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중원대에 부임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습지학회 등에서 논문상 및 학술발전과 관련된 표창창을 다수 수상했으며 올 2014년 2월에는 방재안전분야 학술 및 기술발전과 관련된 공로로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재난관리 연구 개발과 산업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한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는 박 교수를 21세기 대표 지성인 2000명(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과 2014년 세계의 주요 전문가(Leading Professionals of the world, 2014)로도 선정한 바 있다.

이태수 교수 저서 '충의직언' 2014 학술부문 공감도서 선정

중원대학교 중국어학과 이태수교수의 저서 '고대의 중국어 교재《충의직언》'이 2014년 학술부문 공감도서(언어분야, 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충의직언'은 기록으로만 남아 있고 실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충의직언'을 이 교수가 발굴하여 세상에 공개한 화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고려말·조선초에 국가주도로 외국어 교육이 실시된 초창기의 중국어 교과서이다. 고대의 중국어 교재 '충의직언'에서는 '충의직언'의 성격, 내용, 묘사인물, 간행연대, 저자가 소개되어 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문에 현대적인 표점을 덧붙였으며 소실된 부분을 복원·재구성하고 주석을 달아 점교·교감본을 제작하여 삽입하였으며 고서의 영인본을 첨부하여 전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재 편찬방식 및 국가의 언어정책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서이다.

2014년 학술부문 공감도서는 학술 분야 출판활동 고취 및 국가 지식사회 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류, 철학·윤리학·심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등 10개 분야에서 발간된 책 중 독창적 시각과 심도 깊은 논증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창작 도서 중에서 선정된다.



우수 도서로 선정되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아동 청소년 시설 등 6,000여개소의 공공·복지시설 등에 배포된다.

제 6기 학생홍보대사 '가람' 발대식 개최



▶ 홍보대사 5기, 6기, 언론장학생이 총장님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홍보대사 명영호(5기 회장)가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11월 12일 중원대 교무회의실에서 '제 6기 학생홍보대사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6기 학생홍보대사는 대학사랑이 남다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끼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학생 10명으로 구성됐고,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 간 중원대학교를 대표해 각종 학교 행사와 입시박람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홍보대사들은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와 기타 기관을 방문해 이벤트 활동과 메신저활동도 겸하면서 중원대학교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홍보대사 선발에는 많은 재학생들이 지원했으나 1차 12명을 선발하고 프리젠테이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이관식, 임지은(경찰행정학과 2) 학생을 비롯한 10명(남4, 여6명)을 최종 선발했다.

발대식에는 안병환 총장이 홍보대사들에게 직접 단복을 입혀주고 격려해 줬으며 5기 선배 전원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6기들을 축하해 주었다.

한편 1년 동안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단하는 5기 홍보대사들은 축제기간동안 이뤄진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은 수익금 전액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안병환 총장에게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선발된 언론장학생 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함께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안총장은"5기 홍보대사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6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며 "6기만의 창의적인 감각과 열정으로 중원대학교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포츠건강의학 오재원, 육군장교 최초 임관!

중원대학교 오재원(스포츠건강의학과 졸업) 졸업생이 6월 27일 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서 거행된 학사 여군사관, 군종사관 합동 임관식에서 중원대학교에서 배출한 최초 육군 장교로 임관했다.

오재원 소위는 3월초 학생군사학교에 입소해 16주간 강도 높은 기초 군사훈련과 장교로서 갖추어야 될 소정의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육군 장교단의 일원이 되었다.

오 소위는 육군보병학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16주를 이수한 후 야전부대에 배치되어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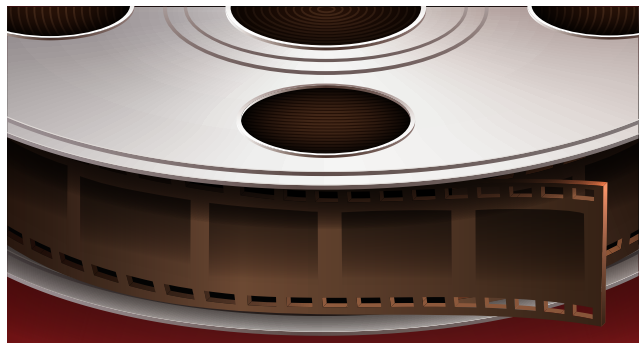
▶ 오재원(가운데)졸업생이 늠름한 육군 장교의 모습으로 동기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관식을 마친 오재원 소위는 "중원대학교 최초로 육군장교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중원대를 대표해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리더십을 갖춘 장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재원 졸업생은 이미 2학년 재학 중 예비 학사장교시험에 합격해 2년 동안 꾸준히 학업과 예비장교로서의 준비를 해왔다.

59기 오소위가 임관한 육군 예비학사장교제도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볼 수 있고 최종 합격이 되면 육군으로부터 소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장교의 꿈을 가진 후배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그 뜻을 이루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앞서 김홍기(스포츠건강의학), 남지현(경영학과)졸업생은 지난해와 올해 공군 장교로 임관해 현재 복무중이다.



고3을 위한 찾아가는 오는 연극 영화 공연 펼쳐

중원대학교 소극장에 11월 24일 오전 수학능력고사를 마친 괴산고등학교(충북 괴산소재) 3학년 학생 120명 객석을 가득 매웠다.

이날 괴산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중원대학교가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 찾아오는 연극 · 영화'행사에 초대를 받은 것이다.

그동안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생들이 펼치는 연극과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중원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괴산 지역은 물론 충북 전지역으로 행사를 확대해 지역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또는 '찾아오는' 연극 · 영화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극 공연은 '리투아니아(Lithuania)' (루퍼트 브룩 作)로, 지난달에 이미 정기공연으로 상연한 바 있으며, 이달 29일에는 전국규모 경연대회인 '제9회 거창 전국 대학연극제'의 공식 참가작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연극영화학과 신현주 학과장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문화를 함께 하기 위해 계획하게 되었다"며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행사1. '찾아가는' 연극 · 영화

- 작 품 :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제작 연극 · 영화 작품
- 일 시 : 상시(사전 협의 필요)
- 장 소 : 연극 공연이나 영화 상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곳
- 수용인원 : 장소에 따라 변동
- 문 의 : 043-830-8801

행사2. '찾아오는' 연극 · 영화

- 작 품 :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제작 연극 · 영화 작품
- 일 시 : 상시(사전 협의 필요)
- 장 소 : 중원소극장(중원대학교 소재)
- 수용인원 : 100명 내외
- 문 의 : 043-830-8801



조원상, 아시아신기록 장애인아시안게임 금메달!

중원대학교 조원상(레저스포츠 3) 선수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조선수는 10월 23일 오후 인천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남자 수영 200m 개인혼영 SM14에 출전해 2분 17초 37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새로운 아시아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예선 2위로 결선에 진출한 조원상은 100m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해 150m 지점을 지나면서는 1위를 기록하며 결승점에 도착, 대표팀 동료 이인국을 0.08초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직후 조원상 선수는 "날 것 같은 기분이다"라며 금메달을 차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기 전 마음을 비웠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경기에 임한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중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조선수는 2012 런던 패럴림픽 동메달과 2013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에서 아시아 기록을 바꾼 바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원상은 "수영에서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며 아시아권이 아닌 세계 기록은 물론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원상 선수는 19일 벌어진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S14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 조원상 선수가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다.

장순혁, 축구 U-21 국가대표 선발 영예!

중원대학교 사상 첫 축구 국가대표 배출



▶ 장순혁 선수가 학교를 빛내고,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장순혁(레저스포츠학과 3)가 4일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중국 4개국 친선대회(CFA International Youth Football Tournament 2014)에 참가하는 U-21(21세 이하) 축구대표팀에 승선했다.

이번에 대표팀이 참가하는 중국 4개국 친선대회는 내년 3월 예정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으로 아시아 지역예선에서 정상을 차지하기 위한 첫 시험무대다.

이광종호에 발탁된 장순혁 선수는 중원대학교 중앙수비수로 188cm의 장신으로 높은 점프력에서 나오는 헤딩으로 제공권 장악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올해 2014 대학선발팀과 베트남에서 열리는 2014 BTV-CUP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대학선발팀에 전민광(레저스포학과 4)선수가 선발된 적은 있지만 국가대표 배출은 처음이다.

장순혁 선수는 "축구를 시작한 지 10년정도 됐는데 대표팀 선발은 늘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다"며 "이렇게 뽑히게 되어서 실감이 안난다"고 대표 선발 소감을 말했다.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경쟁에서 꼭 살아남아서 학교를 빛내고,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장선수는 11월 10일 오후 2시 파주 축구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12일 오전 9시 10분 중국 우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태권도시범단, 전국에어로빅스 7관왕

태권로빅 전종목 석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까지

중원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이 지난 9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에어로빅스대회'에서 태권로빅 경연 7개 전 종목 휩쓸었다.

이번 대회에 신설된 프리스타일 개인, 3인조는 물론 남녀 개인, 페어, 6인조 단체전을 석권한 중원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은 문화체육장관상까지 수상했다.

중원대는 이번 대회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글로벌대학 에어로빅스축제대회'에 처녀 출전해 태권로빅(태권도 에어로빅) 5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한 기염을 토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거둔 비결은 전문 코치진과 학생 간의 '융합'과 '소통'이었다.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WTF) 시범단 감독인 최동성 겸임교수가 태권도 기본기를, 전 에어로빅스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곽애영 강사가 태권도에 에어로빅을 입혀 훈련을 진행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훈련 중간에 지도진과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과 훈련과정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면서 팀웍을 키워나갔다.

시범단은 태권에어로빅 분야 외에도 태권도 시범분야에서도 실력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괴산고추축제와 안동탈춤축제, 문경오미자축제 등 지역 지자체에서 대표 축제에 초청 시범공연을 한 바가 있다.

태권도 시범단 전 종목 석권을 주도했던 최동성 겸임교수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태권도 시범단으로 육성하고 싶다"며 "중원대학교와 태권도의 우수성을 널리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곽애영 강사는 "다른 대학팀들과 달리 태권로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차별화된 태권로빅 작품으로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중원대 태권도 시범단이 세계무대를 향한 더 큰 도약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시범단의 주장인 고송(태권도경호학과 4) 학생은 "훌륭하신 교수님들 지도하에 최선을 다해 연습한 결과"라며 "향후 대회와 일정을 통해 더욱 멋진 시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양영호, 인천아시안게임 양궁 "은메달"



▶ 양영호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선수 양영호(중원대, 레저스포츠 학과)

중원대학교 양영호가 9월 27일 열린 제 17회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양궁 컴파운드 단체전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양영호(중원대 레저스포츠학과 2), 민리홍(23,현대제철), 최용희(30,이상 현대제철)로 구성된 한국 컴파운드 남자 양궁 대표팀은 예선전 8강에서 카자흐스탄을 238-231로 4강에서는 필리핀을 228-227, 극적인 한점차로 꺽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인도를 만난 대한민국 대표팀은 선전했지만 225-227 2점차로 아쉽게 은메달에 거쳤다.

양영호 선수는 최근 국내대회는 물론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그랑프리대회에 참가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아쉬움을 더했다.

김종호 · 양영호, 세계대학양궁선수권 단체 금메달 획득!

김종호 선수, 남자 개인전 은메달 차지

김종호, 양영호(레즈스포츠 2) 학생이 김태윤(한국체대)과 함께 폴란드 레그니차에서 열린 2014년 세계대학양궁선수권대회 남자부 컴파운드단체전 멕시코팀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단체전 동메달은 터키대표팀이 4위에는 벨기에가 차지했다.

한편, 김종호(레즈스포츠 2) 학생은 남자 개인 컴파운드 결승에서 아쉽게 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16강에서 같은 학교 양영호를 1점차로 꺽고 8강에 오른 김종호 선수는 멕시코의 마리오 카르도소 로페스 141-140으로 이기고 4강에 올라 미국의 대니얼 그레로리를 꺽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종호, 양영호 학생은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종목으로 치러지는 컴파운드 양궁의 한국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폴란드에서 열린 이번 세계대학양궁선수권대회는 28개국 18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4일간의 열전을 펼쳤다.



▶ 김종호, 양영호(레저스포츠 2)와 김태윤(한국체대)이 세계대학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새로 생긴 카카오스토리에서 중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JungwonStory

KakaoStory https://story.kakao.com/jungwonuniv

http://www.facebook.com/Jungwonuniv

http://blog.naver.com/jwuackr

https://www.flickr.com/photos/jungwonuniversity

https://twitter.com/Jungwonuniv

중원이와 함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이야기를 카카오톡스토리로 나누고 공감해보세요.



안송미 기자 thdalland@naver.com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JWU in 人

- 우리 학교에 이런선배 있다_조원상편
- 우리 학교에 이런선배 있다_김종호, 양영호편
- 풀브라이트 ETA강사 인터뷰
- 대한민국 세계 청소년 영화제 본선 진출_유소열편



자랑스러운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조원상 선배

최근 장애인아시안게임 수영종목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워 금메달을 획득한 조원상 선수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수영이 즐겁다고 말하는 조원상 선수는 2015 세계선수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우선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3일간의 경기 중 첫날 자유형 200m에서 스타트 실수로 예상했던 성적을 받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멘토 누나의 격려로 마음을 다잡고 남은 경기에 더욱 집중했고 그 결과가 새로운 기록 갱신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아시안 게임을 위해 어떻게 연습을 해오셨나요?

대표팀에서 하루하루 훈련 계획을 짜서 그에 따른 훈련을 해왔습니다.

Q. 훈련 시에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크게 힘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원래 자유롭게 운동을 해왔고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편인데 평소 훈련하던 양에 비해 너무 많은 운동을 쉬지 않고 했던 것이 조금 어려웠던 점으로 기억합니다.

Q. 국제 대회를 많이 경험 하시면서 장애인 국가대표로서 부족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저와 기록 차이가 많이 나던 해외 선수가 국가 지원을 받아 제 기록에 대등하게 성장한 것을 봤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약한 것과 과학적으로도 아직 발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Q.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 운동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당시 체육 선생님이 골격이 좋다고 수영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셔서 시작하게 됐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때 권유를 해주신 선생님께 여전히 고맙습니다.

Q. 운동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나요?

운동선수다 보니 부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해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대로 다 포기해야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Q. 누구보다 힘든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끈기 있게 운동할 수 있는 비결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듯이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큽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들 덕분에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는 총장님과 스포츠단의 지지가 컸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총장님과 스포츠단 팀장님께서 경기를 보러 와주셨는데 하필 그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현재 가장 큰 목표는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제가 외국 선수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생기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즐기면서 운동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2015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학생이 되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될텐데 지치지 말고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재밌게 즐기면서 했으면 합니다. 저 역시 항상 놀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즐기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즐기면서 학교생활 하세요!

한 가지 일만 하다보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이다. 어려움도 많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겠지만 어떤 일이든 즐기면서 하다 보면 조원상 선수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최소윤 기자
jd2326@naver.com



목표를 위한 그들의 노력
국가대표 양궁선수
양영호, 김종호 학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중원대 학우들의 좋은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양영호 선수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김종호 선수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1. 우선 양영호 선수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딴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 감정이 많습니다. 좋으면서 어리둥절하고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준비한 만큼의 기량을 펼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 대표팀 선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으로 아는데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양영호(이하 양) : 저희가 제일 어리긴 했지만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다.

김종호(이하 김) : 맞아요. 사실 저희에게 도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형들과 운동을 함께하며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3. 두 선수 모두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과 다른 국제대회를 비교한다면?

양 김 가장 큰 차이점은 경기장 분위기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다른 대회들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을 쏘면서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회에서는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너무 조용하고 정적이 흘러서 더욱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4. 이번 아시안게임 준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 김 저희도 이제 갓 21살이 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5. '컴파운드' 라는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정식 종목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80%이상이 컴파운드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커브 종목보다 훨씬 적은 선수층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인 전국체전에서도 정식종목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서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에도 정식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 컴파운드 종목이 리커브 종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활입니다. 컴파운드에서 사용하는 활이 좀 더 자동식이라고 말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선수들 어깨에도 무리가 덜 가고 리커브 종목보다 정확도도 훨씬 높은 활입니다.

6.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김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상선수를 했었는데 서로 다른 운동부끼리도 친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궁부 친구들이 양궁장에 데려가서 양궁을 알려줬고 육상보다 더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제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 때 체육 선생님께서 양궁부 감독님이셔서 양궁을 한 번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7. 운동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던 적이 있다면?

양 원래 저는 리커브 종목에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성적도 너무 나오지 않고 힘이 들어서 도망을 쳤다가 잡혀서 억지로 운동을 하고 있던 상태로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계속 힘들고 운동이 하기 싫었는데 당시 코치님의 제안으로 컴파운드로 종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당시 롤모델이 김종호 선수였습니다.

김 저 역시 리커브 종목으로 양궁을 시작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이 워낙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 저 역시 감독님의 권유로 조금 빠르게 컴파운드 종목으로 바꿨습니다. 저나 영호 모두에게 종목을 바꿨던 것이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8.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 청주시청에 김우진 선수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였는데 제가 굉장히 닮고 싶어 하는 선배입니다. 닮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놀 땐 다른 생각 하지 않고 마음껏 놀다가도 운동을 해야 할 때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하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양 저는 김형탁 감독님입니다. 오랫동안 양궁의 길을 걸어오신 만큼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앞으로 선수생활을 마치고 저도 감독님처럼 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9.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 현재는 선수생활을 길게 하고 싶습니다. 오랜 선수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수생활의 경험을 살려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김 컴파운드 하면 '김종호'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컴파운드 종목 개인전 메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최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곧 들어올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돌아갈 수도 돌아올 수도 없는 최고의 시간인 만큼 의미 있게 보냈으면 합니다. 특히 예의 있는 생활을 하길 당부합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등 사소한 것들부터 지켰으면 합니다.

양 인생에 있어서 다신 없을 시간입니다.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는 있어도 현재의 그 나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JWU in 人

제7호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Fullbright ETA의 새로운 두 강사

Andrea와 Sammi를 알아보자

'Fullbright ETA Program(이하 풀브라이트)'을 통해 Andrea와 Sammi교수가 교단을 올라선 지 2개월이 지났다. JR과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은 누군지 우리학교와 학생들은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아보자.

Q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Andrea(이하 A)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Andrea강이에요. 한국인 같이 생겼죠?(웃음) 저희 부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우선 저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현재는 워싱턴에서 살고 있어요. 대학은 매사추세츠에 있는 스미스대학을 나왔어요.

Sammi(이하 S) : 안녕하세요~ 제이름은 Sammi에요. 저는 콜로라도에서 태어나서 현재는 네브라스카에서 살고 있어요. 반가워요~

Q : 이렇게 한국까지 오셔서 선생님이 된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무슨 이유에서죠?

A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모님이 한국분이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국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랑 부모님은 세대차이가 나다보니 부모님에게 배운 한국문화와 제가 직접 만나는 한국인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한국 문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점점 흥미로 바뀌었어요. 그러던 중 풀브라이트에서도 한국지역에 지원하게 되었고 결국 이 곳 까지 오게 됐어요.(웃음)

S 저는 Andrea와 조금은 달라요. 저는 원래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궁극적인 꿈은 통역사지만 그 전에 선생님이 돼서 많은 걸 배우는 것이 목표에요. 그리고 제 전공 중 하나가 동아시아 연구인데 전 특히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에서 평생 사는 것이 목표랍니다.(웃음)

Q : 듣기로 다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은 보통 초, 중, 고등학교로 많이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둘만 대학교에 오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A 저희도 저희가 대학교에 가는 첫 ETA라고 들었어요. 맞지 Sammi?

S 예. 아시다시피 풀브라이트가 한국에서는 중원대에서만 열리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실험적인 거죠.

Q : 대학교라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S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나름 익숙해졌어요. 특히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수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A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가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 교수님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서 재밌어요.(웃음)

Q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A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술 선생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선생님이 되는데 필요한 자질들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단어들이 한자가 많아서 한자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맨날 책만 사고 안 읽는다니까요.(웃음)

S 음... 제 목표는 Andrea와 비슷해요. 궁극적인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거죠. 다른 부가적인 목표로는 아까 말한 한국에서 평생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웃음)

Q :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학생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저희와 얇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라는 벽 말이죠. 단지 영어 하나 때문에 대화를 못 나눈다는 건 정말 슬픈 일 같아요. 그러니 우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줬으면 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미숙하게 한다고 그걸 싫어하는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저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우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저하지 말고 찾아와주세요. 꼭 고민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조크라도 좋아요. 저흰 월요일부터 목요일 18:30~21:30사이에 English Cafe(본관 3층 국제교류원 옆)에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S 저도 동의해요. 학생들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고 싶은 바램이에요. 그리고 곧 수능이 있어서 생각이 나는 얘긴데 가끔 학생들이 성적이나 장학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정말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좌절하지마세요.

Q :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저도 앞으로 English Cafe에 와서 교수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야겠네요. 취재 감사합니다.

A S 많이 놀러오세요.

Andrea와 Sammi교수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이들의 바람대로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낮은 장벽에 겁먹어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다가서서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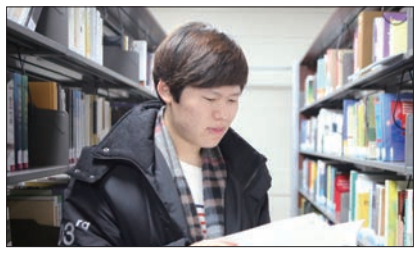
정명준 기자 pmjbks@naver.com

'제 14회 대한민국 세계 청소년 영화제' 본선 진출 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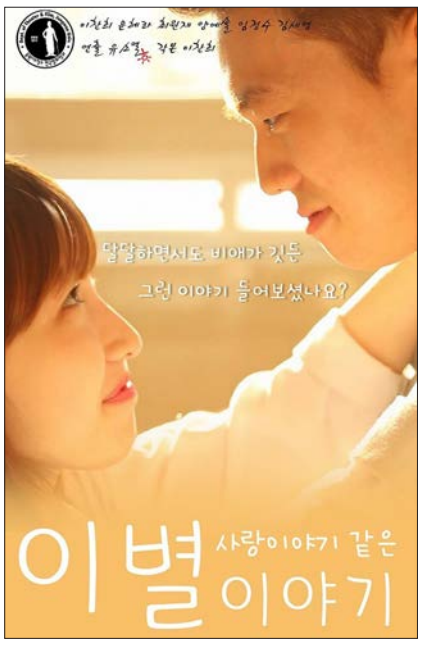
연극영화학과 14학번 유소열학생이 2014.11.12 ~ 11.16 5일간 대전에서 열리는 '제14회 대한민국 세계 청소년 영화제'에서 중원대 최초로 본선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세계 청소년 영화제'는 덕예쌍형(德藝雙馨, 덕과 재능을 겸비한 청소년영화인 양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글로벌 시대 영상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이 본 실력을 뽐내는 대회이다.

유소열학생은 〈사랑이야기 같은 이별이야기〉라는 영화를 통해, 누구나의 청춘 속엔 한 번 씩은 있을만한 장거리 연애의 애잔함을 그 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짧은 20분 안에 가득 채워 넣었다.

유소열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꿈꿔 왔던 영화감독의 꿈을 작게나마 실현한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때 선천적 감각성 난청이 있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었던 그는 영화를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릴 수 있어 특히 소감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차기작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근래에는 '해색소년 스튜디오'라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에서 활발한 활동과, 네이버 파워 블로그



▲ 연극영화과 유소열 감독



▶ '대한민국 세계 청소년 영화제' 본선 출품작 사랑이야기 같은 이별 이야기

활동을 통해 크레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정명준 기자 pmjbks@naver.com

중원대학교에 관한 궁금증 해결 Q&A



Q. 중원대학교를 오고 갈 수 있는 통학버스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A. 현재 주중에는 동서울, 금정, 청주, 증평, 천안, 오창에서 중원대로 오가는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금요일에 학교에서 출발하여 일요일에 다시 되돌아옴) 동서울, 석계, 인천, 금정, 성남, 수원에서 버스가 운영되어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집을 편히 오고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학버스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Q. 중원대학교가 훌륭한 기숙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들었는데, 방 배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2014년 2학기부터 각 학과마다 층과 구역이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중원대학교 통합시스템을 통해 배정받은 구역에서 원하는 방과 침대위치를 선택하여 기숙사신청을 하게 되며, 룸메이트는 같은 학과생이 됩니다. 또 방의 종류는 2인실부터 6인실 까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선착순으로 원하는 방을 고를 수 있습니다.

Q. 중원대학교가 전국 200여 개의 대학교에서 1인당 장학금 수혜율로 전국 7위를 하였는데, 장학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중원대학교는 중원특별장학금(성적우수), 희망 장학금, 교직원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새터민장학금, 대진문화장학금, 지역인재육성장학금(충북소재 고등학교졸업자), 한마음장학금(가족2인 이상 재학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 혜택을 재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신입생들을 위한 장학금에는 신입생 전원 1학기 간 수업료 70만원을 감면해주는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수시, 정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중원특별장학금, 기숙사 관리비 감면혜택 등이 있습니다.

Q. 중원대학교는 종교적인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종교 수업을 학생들이 꼭 들어야 하나요?

A.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 누구든 종교는 자유이며, 종교재단이라고 해서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수업 또한 없습니다.

Q. 중원대학교 하면 '영어 특성화대학'의 이미지로 유명한데, 타 학교와 다른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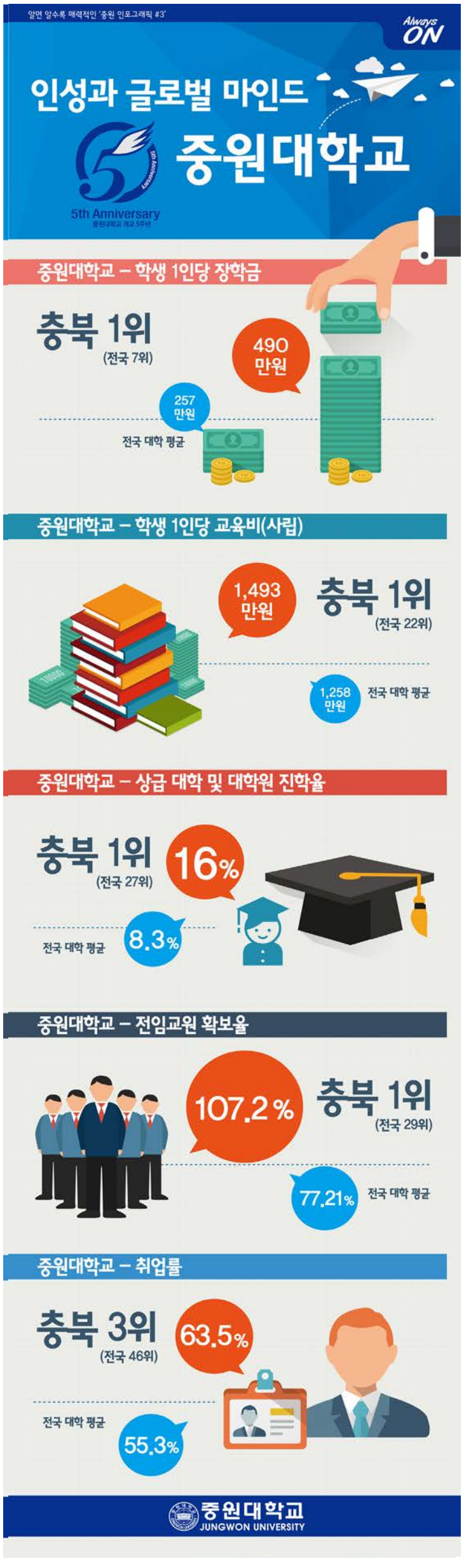
A. 중원대학교는 글로벌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 영어교육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5단계로 나눠진 영어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교수의 높은 비율과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영어카페는 학생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4개국 31개 대학과 학술 · 연구 및 학생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Q. 골프장,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박물관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휴양시설의 이용방법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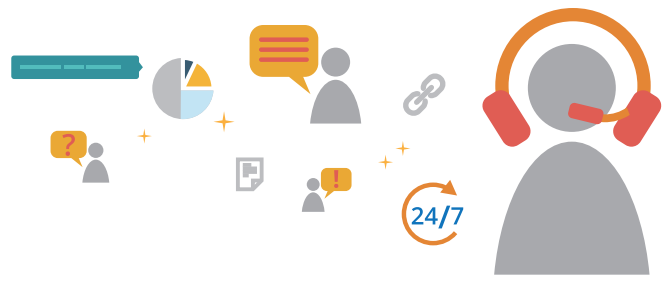
A. 중원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휴양시설을 무료로 또는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가능 합니다. 휴양시설뿐만 아니라 교내 레스토랑,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좌수강 등에서도 20%~50% 재학생할인이 적용되며,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캠퍼스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예린기자 yerin5882@naver.com





내 고민 어디에서 들어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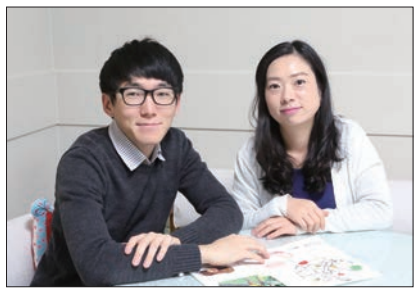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선배들은 나만 안좋게 볼까? 왜 화를 참지를 못하겠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개인상담
1:1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자기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향상, 동기부여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해결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아볼까? 그런데 혼자가기엔 좀..

집단상담
집단 상담,진로탐색, 자기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향상, 동기부여강화 각각의 프로그램을 친구들과 함께!(6~12명)



▶ 옥선형 상담사님께 상담 받고 있는 임태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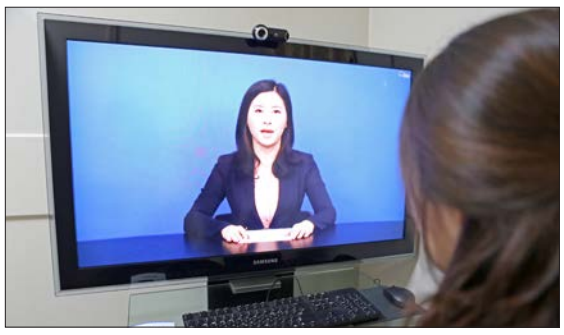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신경 쓰이고...' 이렇게 사소한 고민에서부터 큰 걱정까지 함께 공감해주고 들어 줄 곳이 중원대에도 있을까? 답은 본관 8층 학생회관 S813호에 위치한 '학생상담센터'이다. 대학 생활을 하다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일을 겪게 된다. 대인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적응문제, 성격, 학업, 진로, 심리적 갈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상담과 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상담센터에서의 모든 상담 및 심리검사는 전문 교육을 받은 심리상담사에 의해 진행되며 중원인이라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결과해석 모두 무료이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이며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한다면 상담센터에 찾아오거나 전화(043-830-8143~4)로 시간을 정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접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익명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http://counsel.jwu.ac.kr

임태균 기자 tg0610@naver.com

취업을 위한 돌파구! 중원대학교 취업지원센터!



▶ 모의면접기기를 이용 중인 재학생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사십에서 오십 사이가 정년퇴임이다), 오륙도(오육십세까지 회사에있으면 도둑이다). 요즘 들어 자주 들리는 단어들인데, 모두 취업불황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오정이나 오륙도는 차치하더라도 이태백이라는 말은 곧 취업의 문을 두들겨야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공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바늘구멍같이 좁디좁은 현 취업시장의 문을 어떻게 돌파해야할까?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취업지원센터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지원센터의 문이 닳아 없어질 때 까지 두드려라'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이제 취업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 정보력을 이용하는 시점까지 도달했다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취업지원센터(Career Service Center, S808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상 문을 두드리러 가기에는 막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장 백평구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취업지원센터의 A to Z를 알아보았다.

Q. 취업지원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A. 취업지원센터는 중원대 재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크게는 우리 대학의 취업지원 여건과 역량을 제고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특히 재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구직관련 능력의 향상, 그리고 여러분이 일터(조직)를 보다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주기적인 취업스킬 UP 워크숍이나 특강, Career Frontier Seminar,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업(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한 소개, 구직정보와 박람회 개최 등의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면접기기를 구비하고 있어 학생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면접에 대한 훈련도 돕고 있습니다.

Q. 향후 계획은?

A. 향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일터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센터에서 최근 진행 중인 업무 가운데 대학생 고용가능성 진단이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답변을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여러분이 취업, 넓게 보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유용한 체크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 매년 이러한 진단 설문을 통해 센터 업무의 방향 설정에도 응답 결과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

A. 기본적으로는 취업난이 심각하니 취업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많이 방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취업은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중원대의 모든 재학생이 비슷한 나이와 사고방식과 생활 스타일을 추구하는 또래 학생 집단의 품에서 벗어나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편입되는 대단히 큰 '전환'입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전환에 편입하는 것과 취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 모두 그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 여러분들 또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4학년 학생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활 자체에 충실하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예. 어학능력, 전공 관련 자격증 등)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성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나에게 손을 내미는 어떤 기회와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아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노력하였으면 좋겠고, 첫 단추를 끼우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먼 미래에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진로를 탐색하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데 있어 취업지원센터가 조력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생활을 꾸려갔으면 합니다. 정명준 기자 pmjbks@naver.com

의료공학과 드림메디컬 멘토링 팀

WISET 멘토링 프로그램 10월 베스트 팀 선정!



▶ 왼쪽부터 이지연 교수, 김은아, 신진솔, 문지혜.

베스트 멘토링 팀 이야기 _ 드림메디컬 팀

Q1. 팀원, 팀명 등 팀 소개를 해 주세요.

저희 중원대학교 드림메디컬 멘토링팀은 중원대학교 의료공학과 이지연교수님과 09학번 지이슬, 이동민, 12학번 김다희, 김은아, 신진솔 그리고 13학번 강경민, 권수미, 문지혜, 이지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서로의 꿈을 돕고 지지하는 의료공학과 학생이 되자라는 의미로 드림메디컬이라는 팀명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WISET 충북지역사업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취업에 대해 궁금한 것을 멘토링을 통해 알아가고, 준비하기 위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혹은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멘토링 멤버들 모두 이 멘토링팀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2. 팀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멘토링 팀의 수장이신 이지연 교수님께서는 항상 학생들을 위해주시며, 우리 드림메디컬의 가장 든든한 멘토의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지이슬, 이동민 선배님은 저희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작은 멘토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 밖에 3학년 다희는 항상 발랄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멘토링 활동에 밝은 분위기를 만들고, 은아는 특유의 섬세함으로 멘토링 팀 식구들을 항상 챙겨주고 있습니다. 2학년 수민이는 애교가 많은 학생으로 선배들에게 먼저 친근히 다가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솔,경민,지혜,수미는 궁긍한 것이 많이 먼저 질문을 하여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Q3. 팀원 각자 팀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모습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멘토링 활동 후 달라진 생각이나 변화가 있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학생들 모두 취업에 대해 혹은 진학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선배나 동기와 모여 진로 및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궁금한 것을 실질적으로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 멘토링은 저희가 궁금했었던 점이나, 고민 등을 앞서 겪은 선배들에게 질문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멘토링을 통해 진학이나 창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더욱 폭넓은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하지 않았던 2학년 학생들에게는 앞으로의 계획, 진로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곧 취업을 하게 될 3학년 학생들에게는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암감, 조급함 들을 해소해 주기도 하였으며, 선배들을 통해 알게 된 취업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Q4. 팀 멘토링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학교에서는 전공 공부, 개인 공부 등으로 선, 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취업이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오랜만에 선,후배가 모여 우리과의 분야, 진학 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졸업한 선배들에게 취업 후 생활이나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으로 진학한 선배가 오프라인 멘토링에 깜짝 방문하셔서 대학원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막상 상상만 하던 대학원 생활을 선배의 입으로 전해 들으니 끔찍한 곳으로 변하여 학생들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막연히 대학원 진학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하는 용기를 심어주어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젊은 여성 CEO분을 모시고 오셔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면 모두 어렵게 생각하였는데,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꼭 취업이나 진학이 아닌 다른 분야도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Q5. 팀 멘토링을 통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이번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정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멘토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가 누렸던 값진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도 함께 누리고 싶어, 앞으로 이런 모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드림메디컬 멘토링 팀 구성원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이나 진학을 하게 되면 뒤의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6.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멘티는 적극적으로 멘토링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자기 의사표현과 자신이 사전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 취업에 대해 궁금했었던 것들을 미리 생각하여 멘토에게 질문 한다면 더욱 성공적인 멘토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멘토는 멘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여 조언을 해준다면 멘티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메디컬 멘토링팀 구성원은 모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고 모두 적극적으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더욱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7. 그 외에도 멘토링에 대해 하고싶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처음에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막상 멘토링을 끝내고 나니 이런 질문도 해볼 걸 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대학생활에 중요한 순간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뿐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중한 것을 얻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드림메디컬 멘토링 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꿈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탐방
신설학과 소개

항공서비스학과 이연숙 교수를 만나다.

Q. 보통 항공서비스학과는 2년제에 많은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년제 대학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중심적인 반면 4년제 항공서비스학과에서는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학문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요즘 많은 항공사들이 2년제보다는 4년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도 유리합니다.

Q.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항공서비스학과는 승무원이 되는 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승무직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항공서비스에는 지상직 승무원, 공학 직원, 보안 및 VIP 라운지 등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되는 길은 다양한 항공서비스의 길 중 한 가지 진로 방향일 뿐입니다. 단지 승무원이 되는 학과가 아닙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항공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모티브가 될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에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울 것이며, 전문적인 예절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모티브가 되는 만큼 항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호텔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Q. 항공서비스학과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 남학생들이 오기는 힘든가요?

아닙니다. 앞선 질문의 연장으로 항공서비스 분야에는 다양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성별은 전혀 무관합니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Q. 입학을 앞둔 15학번 신입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시작될 대학교 4년을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성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학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승무원이 되기 위한 기본 토익 점수는 최소 650점 이상입니다. 태도나 표정 예절은 학교에 입학 후 배우고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어학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항공서비스학과 학과장으로 부임한 이연숙 교수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출신으로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 박사 출신이다.

최소윤 기자 jd2326@naver.com

경호학과장 박영만 교수를 만나다.



Q. 타 대학에도 경호학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대 경호학과를 타 대학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경호학과를 졸업한 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책과 현장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론들 외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학년~3학년 사이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호신술이나 특기를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면 4학년 때는 인턴십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입학 후 CMP(Career Mentoring Program)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파악해서 군장학생이나 학사장교 준비반을 따로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가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경호학과 제복을 입는 것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길러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호 시범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호 시범단을 통해 경호학과 학생 모두가 함께 자원봉사의 경험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경호학과를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군장학생이나 학사장교 외에 경호학과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은 많습니다. 대통령이나 고위급 경호실과 경찰 공무원이 되는 학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자신들의 특기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대화로 잘 이끌고자 합니다.

Q. 그렇다면 경호학과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위주가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경호원이라고 해서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여학생들 역시 장교 외에 대기업 사모님들의 경호를 맡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자가 가지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긴 하지만 여자 경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꿈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수시를 합격하거나 수능을 치고도 입학 전까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5개월 정도 있는 시간들을 예비 대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왔으면 하시나요?

요즘 학생들이 다양한 자격증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학 전까지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왔으면 합니다. 제 2외국어에 능통한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입학을 앞둔 15학번 신입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학생이 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중원대학교 경호학과는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에 기준을 잡아줄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언제나 학생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타지에 자녀들을 보낸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님들과의 소통의 기회도 다양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경호학과 학과장을 맡은 박영만 교수는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 석사 학위를 취득 했으며 경기대학교에서 경호안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영만 학과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수행부단장과 (주)ISG시큐리티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한국체육대학교와 여주대학교, 경기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강의를 한 바 있다.

최소윤 기자 jd2326@naver.com

의료 · 보건의 선봉,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사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단순히 백색부터 나이팅게일, 의사의 진료를 돕는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위의 의미들도 맞지만 간호사는 단순히 의사를 돕는 것을 넘어 24시간 환자 곁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하고,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기대수명 100세를 넘보는 인간에게 의료는 이제 중요한 행위가 되어버렸다. 이에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주경야독 하는 중원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알아보자.

중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성심, 경건, 신념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현장적응형 간호사, Bilingual기반의 차세대 글로벌 간호사, 상생봉사형 간호사 육성에 힘쓰고 있다.

1학년 때는 전공수업을 바탕으로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간호사가 갖춰야할 인성 및 기본 개념 확립에 최우선을 한다.

2학년부터는 격주로 실시되는 실습과 바로 이어지는 시험을 통해 확고한 이론적 개념과 실습실력 겸비를 목표로 한다. 3, 4학년 때부터는 병원으로 직접 현장실습을 경험하며 졸업 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간호사를 목표로 한다.

간호학과 학과장인 김종임 교수는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간호전문인으로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엄격한 실습활동과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 어느 현장에서든 힘차게 도약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간호사로 육성하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정명준 기자 pmjbks@naver.com

축제를 빛낸 동아리





10월에 있었던 '중원한마당축제'하면 동아리공연을 빼놓을 수 없겠죠?
보컬이면 보컬, 힙합이면 힙합, 댄스면 댄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ENT의 리더 박준휘(컴퓨터공학과 10), 탄탄한 밴드와 함께 노련미가 물씬 풍기는 공연을 선사한 Noblesse의 리더 정진영(영어학과 10), 신나는 음악과 함께 자연스런 호응을 이끌어낸 Climax의 리더 장민수(골프학과 10)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동아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 ENT는 Entertainment의 약자에요! 즐기자는 의미죠.

노: Noblesse란 의미는 말 그대로 귀족이란 뜻이에요.

클: Climax는 절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Q. 꾸준히 활동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 공연 후 뒷풀이와 평상시 친목을 다지기 위해 모임을 많이 가져요!

노: 모이면 음악 얘기는 빠지지 않고 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는 멤버들 덕분이죠.

클: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모였어요. 말 다 했죠!

Q. 공연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보컬이나 힙합의 경우엔 개인연습으로 준비해요. 댄스는 여럿이서 맞춰야 해서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길어요.

노: 공연이 잡히면 개인연습을 토대로 합주를 시작해서 공연 전까지 준비해요.

클: 여러 공연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평소에 틈틈이 준비 하고 있어요.

Q. 중원한마당축제에서의 공연소감은 어땠나요?

이, 노, 클: 관객들의 호응이 좋아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공연했어요!

Q. 동아리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이: 'ENT 덕에 멋진 대학 생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후회 없이 즐기자!

노: 다 함께 노력해서 더 즐겁고 열정 가득한 밴드 되자! 고맙다. 사랑한다.

클: 내년이면 너희를 못 보네. 나 만나서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Q.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 매학기 초에 정기, 비정기 오디션을 진행하니 잘 놀고 즐길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노: 악기를 잘 다룬다면 대환영, 악기를 못 다룬데도 대환영, 열정과 의지를 들고 찾아주세요!

클: 인성을 바탕으로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음악을 좋아한다면 좋겠어요!

임태균 기자 tg0610@naver.com

ENT entertainer

NOBLESSE BAND CLUB

CLIMAX

JWU Festival SHOW

제 6회
중원 페스티벌 축제를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중원인들이
너무 눈 부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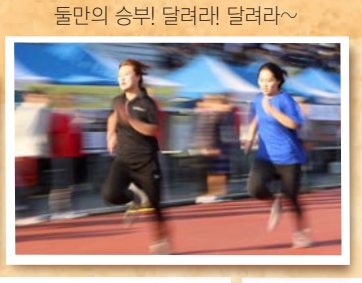


둥글게 둥글게! 짝! 어라.. 이게 아닌데









둘만의 승부! 달려라! 달려라~



현영이 부릅니다.
누나의 꿈!!





새콤달콤
꽃미소?





예쁘게 봐주세요 행님!



김치 치즈 스마일 :-)



한번 드셔 보세지 〉〈



시간있어요!
차 한잔하구 해요!~





후루룩 쩝쩝~ 맛나는 떡볶이





반짝반짝 시공은 하지만
컴시공은 아니에요~



자자~
점괘를 보아하니~
요래요래 하구먼!

▼ 작업치료학과 준비하시고!~





와줘서 고마워~ 엄마미소 ;-〉



백의 천사들

JWU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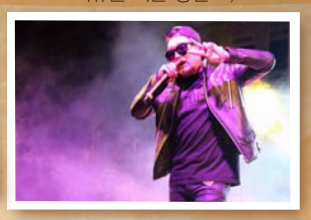
중원의 버스커 버스껑

가을밤의 꿀잼!~





여유는 기본 장전 :-)



노래는 맛있어~!



너의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오! 오! 오!



산이 봤어요? 와! 대박!!



힙합 스따일 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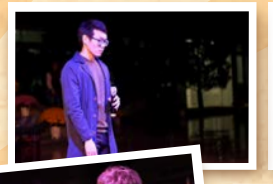


나좀 간지좀 나나?



어헙! 스텔라와 이게 꿈이여 생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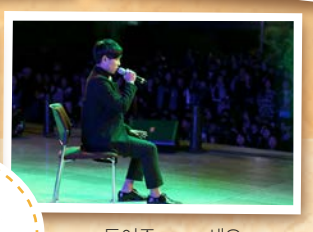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옹? 나도 왔져~



소리 질~~러



들어주~~~세요



천~천히 드루와~ 드루와~봐

엄마! 져 UCC 대상탓어요!



UCC 최우수상 앗어요! 어메! 홍일점!











응원상 탓어요! 오예!!~







알콩달콩 입장상 탓어요!



교수님! 입장상 탓습니데이!~



저희도 준우승 탓어요!



입장상 받았어용!

English cafe에 대해 알아보자







▶ 평일 저녁의 English cafe. (왼쪽 사진) Peter교수(카페운영자)와 Andrea 교수가 영어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사진)

English cafe(본관 3층 국제교류원 옆)가 지난 10월 중순에 문을 열었다. English Cafe에서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친구들과 가벼운 수다를 즐기거나 따듯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숨은 장점은 따로 있다. 바로 중원대학교의 특징 중 하나인 글로벌 교육과 연관이 있는데 다수의 외국인 교수 유치라는 장점을 살려 외국인 교수와 수업 외에 사석에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Peter교수의 주도하에 오픈한 English Cafe에는 언제나 외국인 교수가 머물고 있어서 한 잔의 차와 유쾌한 영어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Peter교수는 "그동안 학생들과 외국인 교수가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에 영어 카페를 운영하게 되어 정말 보람차다. 이곳은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부담없이 많이 이용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단한 대화나 보드게임, 교수님들과의 멘토링이나 튜터링, 심지어 그냥 친구들과 와서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을 듣는 등 휴식을 취하러 오는 것도 환영이다. 이곳이 딱딱한 장소 보다는 가볍게 사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하루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편안히 휴식을 취하며 사교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운영 시간은 매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이며 금요일에는 상황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정명준 기자 pmjbks@naver.com

언론장학생 소개

임태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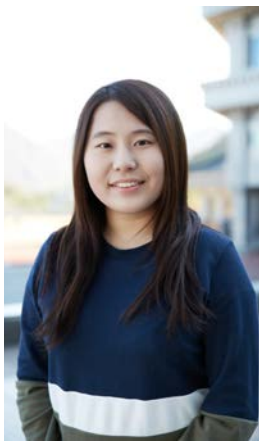
이번에 언론장학생 2기에 당당히 합격한 생약자원개발학과 11학번 임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꿈은 모든 학우여러분들이 중원학보를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를 열고 펜을 준비하고 있으니, 중원학보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태균 기자 tg0610@naver.com

최예린

국제통상학과 14학번 최예린입니다. 이전에 KOICA 에서 학생기자단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원대 학우들에게 발빠른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하고자, 언론장학생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장학생인 중원리포터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식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 신문에 실렸으면 좋겠다 싶은 희소식이나 제보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예린기자 yerin5882@naver.com



취업지원센터 카톡친구 추가로 구직정보 받자!

5th Anniversary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성과를 위하여 신속한 취업관련 정보전달과 편리한 정보 접근성을 위하여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카톡으로 구직 정보 받을 수 있게 학생 여러분 지금 당장(롸잇나우) 친구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취업지원센터 ID

jwujob





▶친구 추가 방법



영화속으로

루시, 인터스텔라





▶ 9월달 개봉당 영화 '루시' 포스터

평범한 생활을 하던 루시(스칼렛 요한슨)가 어느 날 사건에 연루되어 미스터 장(최민식)에게 납치되어 강력한 합성약물을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뇌를 100% 사용한다는 것을 그려낸 영화이다.

소재가 참 좋다. 감독은 인간의 뇌의 한계를 완전히 개방하면 마치 우주의 은하계 같이 신비로우며 한계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보다. 인류 최초의 여성인 루시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마지막엔 그 최초의 장본인인 고릴라와 손가락을 맞대는 장면은 시공간조차 뛰어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좋은 소재 속에서 많은 아쉬움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영화가 너무 친절 하다. 영화가 시각적인 측면을 통해 소설보다 이해를 돕게 하기 쉬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감독이 너무 관객을 우매하게 여겼던 것일까? 주구장창 나오는 상세한 설명들은 관객들이 영화에 대해 생각할만한 여지마저 앗아가 버렸다. 요즘 관객들은 영리해서 감독의 숨은 메시지를 찾는 것을 즐긴다.

특히 감독이 숨겨둔 메시지를 여러 번 곱씹다 찾아냈을 때의 그 쾌감은 단순한 인지를 넘어 감동으로 다가온다.

둘째, 최민식의 주연이다. 최민식은 그저 미스터 장이라는 지하세계의 한 보스로 단지 루시가 뇌를 100% 사용하게 되는 계기만 만들면 되지, 굳이 마지막 총격전 씬을 억지로 만들어 대미를 장식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필자도 한국배우가 할리우드에 출연하면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보는 내내 '인간이 100% 뇌 활용하는 것과 최민식의 총격전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하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전작들의 철학적인 주제와 액션의 환상적 콜라보레이션이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귀가 따가운 불협화음이 아닐 수가 없었다. 220v단자에 110v플러그가 들어갈 때 까지 꽂아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싶다.

위의 두 가지 에러가 영화를 다소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소재나 영화의 스케일, CG, 영화음향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면을 보였다. 킬링타임용으로는 괜찮은 영화이다.



▶ 11월에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 포스터

인류역사에 또 하나의 대작이 나온 것 같다. 지난 11월 6일 개봉한 인터스텔라는 개봉 3일 만에 관객 수 100만 돌파, 기존의 네이버 평점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맬더스 이론에 입각한 식량부족과 오로지 발전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터전을 더럽힌 인류. 그 이유로 지구는 더 이상은 생존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이제 더 이상 지구에서는 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인류는 그간의 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터전을 찾아 다른 행성으로 떠나려고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뛰어난 조종과 엔지니어링 기술자인 쿠퍼(매튜 맥커너히)는 다시금 한번 우주로 비행하는 것을 제안 받지만 가족과 인류의 희망을 찾는 일 사이에서 깊게 고민하는 그 과정과 인류의 사투를 그려낸 작품이다.

우선 이 영화는 좀비물과 같은 판타지적 아포칼립스가 아닌 인류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소재로 한 현실적인 아포칼립스를 다뤘는데, 감독은 이 난해한 주제 속에서 휴머니티와 공상과학을 천재적인 연출을 통해 러닝타임 169분짜리의 필름 속에 담았다.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쉽지만 그걸 남을 설득시키게 표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수준 높은 현대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그것들을 어설프게 표현 했다가는 거센 질타를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놀란 감독은 그 많던 자신의 생각을 긴 러닝타임 속에서 조금의 이질감도 없이 완벽하게 표현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시했는데 특히 그런 메시지의 이해를 돕는 웅장한 스케일은 정말 순간순간 숨을 멎게 하기 충분했다. 실제로 우주에 온 것 같이 만드는 그 기술과 음향의 몰입성 또한 관객들이 한 순간도 감탄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2014년에 이보다 나은 영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은 영화가 나올지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크리스토퍼 놀란감독이 IMAX를 특히 사랑한다는 것은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IMAX를 즐기는 것을 꼭 추천한다.

정명준 기자 pmjbks@naver.com

겨울방학 대비 꼼꼼한 계획표 작성 방법



1. 계획은 구체적으로

위의 '아침 9시~11시 토익공부'와 같은 계획들과는 이제 이별을 할 때가 왔다. 항상 계획은 세웠지만 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많을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침 9시~11시 토익공부', '아침 9시~11시 ooo토익 책 19~23page'. 전자와 후자 중 무엇이 더 달성하기 쉬운가? 그렇다. 후자가 좀 더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서 달성하기에도 쉽다. 지금까지 전자의 계획을 세운 후 책 한 페이지를 채 못 마친 뒤 '아, 귀찮다. 내일 해야지.'를 외치며 책을 덮은 적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듯 구체적이지 못한 목표는 전혀 쓸모가 없다. '오후 1시~2시 oo책 54~60page까지 읽기', '오후 10시~10시 30분 줄넘기 150개하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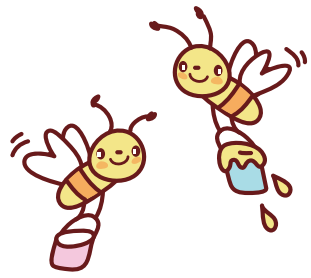
2. 계획들을 바탕으로 일간 → 주간 → 월간 →연간 목표를 세워라.

위와 같이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한 가지를 발견 할 수 있다. 바로 자신의 성취도이다. '아침 9시~11시 ooo토익 책 19~23page'를 하다보면 누군가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간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듯 구체적인 계획을 반복하다보면 자신의 성취도에 대한 자료가 나온다. A가 100장 분량의 토익 책을 하루에 4장을 끝낼 수 있다고 가정하자. 대략 한 달이면 한 권을 끝낸다는 통계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A는 6개월 안에 책 6권을 끝내고 6개월간의 모의고사를 통해 1년 안에 자신이 원하는 토익점수를 만들기를 결심했다. 뭔가 체계적이지 않은가? 이렇듯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자신의 월간, 연간 성취도를 미리 파악해 좀 더 체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이어트 또한 마찬가지다. 결심만 하지 마라. 무슨 운동을 언제 할 것인지 상세하게 계획해라.

그 저명한 소크라테스, 뉴턴과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균등한 24시간을 배분받았다는 점이다. 누군가 시간을 낭비할 때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당선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번 겨울방학을 계기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몸에 익혀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자.

정명준 기자 pmjbks@naver.com

겨울방학엔 뭐하지? 알 찬 방학을 보내는 꿀 팁!



여름방학이 끝나가며 다가오는 개강날짜에 몸부림치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잇달아 치르고 나니 어느새 또 꿀같은 긴 겨울방학이 돌아왔다. 긴 방학이라고 '몇일 만 놀자' 식으로 안일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타임워프를 한 것 마냥 아무것도 안한 채 개학을 허무하게 마주할 수 있다. 겨울방학을 후회 없이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꿀같은 팁을 알아보자.

1. 청춘들이여! 내일로 기차여행으로 떠나라!



2014.11.25 - 2015.02.28 96일간 동계 '내일로' 티켓을 드디어 발매하기 시작하였다. 내일로란 열차를 이용해 전국여행을 할 수 있는 무제한 철도이용 패스로 만 25세 이하 청춘들에게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티켓이다. 이 티켓 한 장이면 KTX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자유석 또는 입석으로 지정된 날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열차, 관광열차(O,S,DMZ 등)도 50% 할인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다. 내일로 가격은 5일권 56,500원, 7일권 62,700원으로 서울-부산 새마을호 왕복운임도 안되는 가격이니, 실로 청춘들은 이 여행 할 타이밍을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꿀 찬스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번기간에는 특별히 과거에 내일로를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12월 1달 동안은 만 2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내일로를 이용해서 여행할 수 있다고 하니 20대 청춘들이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친구와 함께 추억도 쌓으며 젊음을 불살라 전국여행을 해보자!

2. 마음의 양식! 미뤄뒀던 독서를 해보자!



평소 때는 시험공부하랴, 밀린 과제하랴,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도 폰 좀 만지막 거리면 금세 점호할 시간이 다가오는 바쁜 일상에 도무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기회는 바로 겨울방학! 1주일에 1권 읽기 목표를 정하고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보는 건 어떨까? 어떤 책을 고를지 고민된다면 '대학생 추천도서 100권' 목록을 참고하여 그중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보자.

하지만 요즘 같은 스마트폰시대에 꼭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필요는 없다. '리디북스', '네이버북스' 어플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책을 무료 또는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언제든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독서를 할 수 있다. 손안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고, 원하는 책을 금방금방 빌릴 수는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독서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3. 방학의 꽃!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자!



방학이 시작되면 스스로 용돈을 벌 생각에 부푼 마음을 갖고 여기저기 구인광고 사이트를 뒤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만 벌기 위한 단순한 아르바이트는 STOP! 1시간 5210원 최저시급을 받고 시간을 소모하기엔 우리의 청춘이 너무도 아깝다.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꿀 같은 아르바이트를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자.

예를 들어 다가올 스키시즌에 맞춰 스키장 알바를 해보는 것도 좋다. 보통 숙식 무료제공에 시급도 높은 편이고, 게다가 스키를 무료로 배우고 맘껏 연습도 할 수있는 메리트가 있다. 평소에 스키를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이번기회에 스키 마스터가 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소기업이나 기관에 단기알바로 들어가 자신의 미래직업에 대한 업무를 배워보는 것도 좋다. 헬스트레이너가 꿈이라면 헬스장 카운터 및 트레이너 보조로, 바리스타가 목표라면 카페에서 커피 제작하는 알바를, 미래에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싶다면 마트에서 식품 및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판매직알바를 해보는 것이다.

직접 발로 뛰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회경험을 하다보면,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막연히 생각했던 미래계획도 점점 구체화되 방학전보다 한결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예린기자 yerin5882@naver.com

2014 JUNGWON
‘아름다운 중원인’ 사진 공모전



대 상

당신의 조각들
의료정보행정학과 _ 고은주, 박유리



최우수상

중원을 보다
의료정보행정학과 _ 전서안



우수상



복고왕
혜움 (동아리)



사회복지 함께 날아오르다
사회복지학과 _ 이은정

장려상



별이 쏟아지는 밤
의료공학과 _ 임경민



JWU
연극영화학과 _ 유소열



양아치들의 최후
태권도경호학과 _ 고송 외 3명



중원대학교 청 친구들
산업디자인학과 _ 조재은

www.jwu.ac.kr

세상의 변화를 이끌 인재,
인성과 글로벌 마인드에서
시작합니다

성적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성품의 기준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 사람다운 사람, 인재다운 인재를 키우기 위해
사람됨에서부터 시작하는 중원대학교
실력 뿐만 아니라 바른 인품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합니다



2015학년도 정시 (가)군, (다)군 신입생 모집안내

- **접수시간** : 2014. 12. 19(금) ~ 12. 24(수)
- **입학문의** : (043)830-8082~5 ▪ http://ipsi.jwu.ac.kr

미래지향 정예교육의 특화된학과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 항공정비학과
항공재료공학과 / 항공서비스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종교문화학과 / 한국학과 /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 법무법학과 /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 아동보육상담학과

의료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 간호학과 /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 뷰티헬스학과

이공대학
의생명과학과 / 의약바이오학과 / 식품공학과
의료공학과 / 컴퓨터시스템공학과
메카트로닉스학과 /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예술학부
연극영화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경호학과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